

준해양사고 예방자료 제공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윤형* · 김홍범** · 채병근** · 김기선***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 study on Providing Prevention Data of Near Accident

YunHyung, Lee* · HongBeom, Kim** · Byeonggeun Chae** · Kisun, Kim***

*, **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핵심용어 : 준해양사고, 설문지, 예방자료

Key Words : Near Accident, Questionnaire, Prevention data

1. 개요 및 연구목적

현재 준해양사고의 통보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어선 제외)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의 1항)

이렇게 보고된 준해양사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분석하여 책자와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예방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박과 유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기존에 준해양사고 예방자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http://www.kmst.go.kr>)와 해양안전심판원 사고조사심판정보포털(<http://data.kmst.go.kr>) 그리고 ‘나최고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라는 책자 형태로 예방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의 이와 같은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준해양사고를 담당하는 육상종사자에게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예방자료 제공방안의 제언

기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료는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육상종사자에게는 익숙한 형태이다. 설문 중 “나최고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등과 같은 준해양사고 분석자료를 제공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 이와 같이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는 것에 응

답한 경우는 30%를 차지했다. 나최고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12년 초부터 매년 발행하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삽화책자이다. 설문 중 “나최고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등과 같은 준해양사고 분석자료를 제공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 책자 형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게 차지했다. 이는 책자형태로 발간되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앱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안한다. 다만, 이 같은 예방자료는 사용자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준해양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정부 차원에서 주최하는 것도 제안한다. 이때 수집분석된 예방자료를 사용하면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박운항자인 선원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본선에서 준해양사고의 빈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준해양사고 예방자료는 현재 홈페이지, 책자형태로 제공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정부주도의 준해양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때 예방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제안한다. 무엇보다 선박의 선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선원들에게 해당교육을 실시하여 본선에서부터 준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고) 본 논문은 “준해양사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 First Author : domse54@daum.net, 051-620-5823

† Corresponding Author : kisun.kim@seaman.or.kr